

2021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조상의 덕을 기리며, 올해 지나온 날을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예식의 말씀 / 인도자

추석을 맞이하여 추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 다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 다같이, 301장, 428장

기도 / 말은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이켜 보면, 한 순간도 은혜 없이 살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라건대,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백신 접종과 치료제 보급이 원활히 진행되어 팬데믹의 고난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보름달 같이 풍성하고 너른 마음으로 감사의 열매를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명절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 말은이, 창세기 50장 18~21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설교 / 설교자-불화 대신 용서를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다 마친 야곱의 아들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아우, 요셉 때문입니다. 사실 요셉이 겪었던 온갖 고초들은 따지자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야 겉으로는 화기애애하게 지냈습니다만, 돌아가셨으니 이제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금방이라도 피의 복수극이 벌어질 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은 앞 다투어 요셉을 찾아갑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면서 동생의 눈치를 봅니다. 심지어는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복수는 하나님의 몫이니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요셉 자신은 그저 용서 하겠답시다. 그 오랜 미움과 증오의 앙금을 털어내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형제간의 모든 불화는 화목하게 변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지요.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억울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과정을 이끄셨다는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불화로 인한 요셉의 고난을 결국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셨다는 믿음이지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용서가 불화를 화목으로 바꾼 것입니다.

창세기는 사실 불화(不和)와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불화했고 가인은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넘겼고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는 두 아들 간의 반목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까지 …… . 창세기는 그렇게 불화와 갈등으로 점철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마지막은 용서를 말합니다. 인간의 삶은 비록 불화와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서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한결 같이 전하는 말씀, 곧 용서를 통해 해묵은 은원(恩怨)을 털어내고 새로운 한결음을 내딛으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를 십자가를 통해 선으로 바꾸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한가위 명절입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뭐하시렵니까? 꽃놀이(花鬪)하다가 결국 언성 높이는 명절을 보내시렵니까? 텔레비전 앞에 누워 간식 타령이나 하고 있는 남자들 흥이나 보는 명절을 보내시렵니까? “자녀들 어느 대학 갔는지, 취업은 했는지, 연애는 하는지” 비교하면서 속 끓이는 그런 명절을 보내시렵니까?

그보다는 서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따라 그동안 차마 말하기 어려웠던 일, 서운했던 일, 아쉬웠던 사연들을 진솔히 나누고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서로를 함께 보듬어 안으며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가위에 용서와 화해가 보름달 같이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 설교자

찬송 / 다같이, 559장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